당뇨병인지 어떻게 아는가

다음, 다식 및 다뇨가 의심되면 당뇨병 증상일 수도 있다

차 례

1. 목마름
2. 다뇨(多尿)
3. 다식(多食)
4. 체중감소
5. 권태감
6. 신경증
7. 음위(陰萎, 陽氣不足, 임포텐스)
8. 피부병
9. 시력장애

당뇨병이 생기면 대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는가. 급격하게 발병하는 어린이 당뇨병이나 젊은 사람의 당뇨병에서는 당뇨병의 독특한 증세인 목마름, 다뇨(多尿), 다식(多食) 등의 증세가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나 40세가 지나서 발병하는 노인성당뇨병에서는 반드시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과에서 부스럼, 습진이나 가려움증 등을 치료받다가 발견되기도 하고, 외과에서는 잘 낫지 않는 감염증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질염, 질부가려움증이나 거대아의 분만으로, 치과에서는 치조농루, 안과에서는 백내장 같은 시력장애, 등으로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정기적인 신체검사나 생명보험가입 때의 신체검사로 뜻밖에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

당뇨라는 것은 다른 병과는 달리 완치라는 개념이 아닌 반치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치료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근거없는 치료법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제들이 우리 당뇨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월간 당뇨에서는 당뇨전문지로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당뇨인들에게 알차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당뇨병상식이라는 고정란을 마련해 앞으로 당뇨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당뇨합병증까지 광범위하고 폭넓게 다룸으로써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라는 수도 적지 않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자각증세가 매우 가볍고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별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기회에 우연히 발견되는 일이 흔하게 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증세가 진행된 뒤에 비로소 진찰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들의 집단검진 때에 발견되는 당뇨병 환자는 그때까지 전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90%이상)이었다. 당뇨병은 일부러 찾아내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다.

무릇 당뇨병의 자각증세에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

1. 목마름 : 당뇨병일 때에는 몸안에 포도당이 많아진다. 포도당은 마치 소금과 같아서 물에 녹기 쉽고 물에 친화성이 있으므로 포도당이 많아지면 수분을 지나치게 필요로 하여 결국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당뇨병의 자각증세중 가장 일찍,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이 목마름증으로 냉수, 청량음료 혹은 쥬스 등을 한없이 마시게 되며, 밤중에도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2. 다뇨(多尿) :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또한 포도당이 몸안에서 몸밖으로 배설될 때 물에 용해되어 배설되기 때문에 다뇨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고혈당이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항이뇨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줌량은 하루 2,000~4,000cc인 것이 보통이나 환자에 따라서는 7,000cc에 달하기도 한다. 당뇨병환자의 오줌은 보통 맑고 엷은 노랑빛을 띠우며, 비중은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높다.

3. 다식(多食) : 섭취한 칼로리(熱量)에서 오줌으로 잃어버리는 칼로리를 뺀 칼로리가 생체의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부족하게 되므로 기아감(飢餓感)이 일어나서 많이 먹게 된다. 뚜렷하게 많이 먹지 않더라도 보통때 별로 간식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단 것을 먹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다식 및 다뇨는 이른바 삼다(三多) 증세로서 당뇨병에 가장 특유한 증세이므로 이 셋이 갖추어지면 이것만으로도 당뇨병이라고 진단내릴 수 있다. 대체로 당뇨병환자들의 60%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인 것이다.

4. 체중감소 : 비만은 당뇨병의 발병에 앞서서 보는 증세이지만 가벼운 경우를 빼고는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것은 다름아닌 당질은 이용되지 않고 그 대신 몸안의 지방이 동원되어 소모되는 것과 다뇨 때문에 조직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는 까닭 때문이다.

장년 이후에 원인 모르게 몸무게가 빠지면 한번은 당뇨병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체중감소는 특히 I형 당뇨병에서 심한 것이

보통이며 10일 동안에 10kg이 빠지는 것을 경험한 당뇨병환자도 있다.

5. 권태감 : 어딘가 모르게 맥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고 하는 이른바 권태감은 비단 당뇨병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나 당뇨병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세이다.

중증 당뇨병에서는 한층 심하여서 일에 싫증을 쉬 느끼며 손발을 놀리기가 귀찮을 정도로 쇠약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눕고만 싶으며 계단을 오르내닐 때 무릎이 떨릴 지경까지 되는 수도 있다.

6. 신경증 : 신경계의 변화로는 손발의 저림증, 신경통 같은 통증 등이 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등이 있을 때에도 손발이 저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으나 확실한 질병이 없는데도 저림증이 있을 경우에는 당뇨병을 한번 의심하여야 한다.

또한 당뇨병에서는 흔히 신경통 같은 통증을 팔다리에 느끼는 수가 있다. 특히 나이든 늙은이에게서 많이 보며, 비만한 사람으로 신경통을 호소할 때에는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다.

7. 음위(陰萎, 陽氣不足, 임포텐스) : 음위는 당뇨병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 증세로 병원에 왔다가 당뇨병을 발견하게 되는 수가 의외로 많다. 그 원인으로는 당뇨병의 상태가 나쁠 때 자율신경에 이상이 일어난 결과라고 보며, 따라서 당뇨병의 신경합병증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에 있어서는 월경이상, 월경조기정지 및 성욕감퇴 등으로 일어나며 남녀 어느 경우라도 빠른 시기에 당뇨병 치료를 충분히 하면 회복할 수 있다.

8. 피부병 : 당뇨병에 걸리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남자의 경우에는 목덜미에 종기가 잘 생기며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면도 뒤나 그 밖의 가벼운 상처 뒤에 곪기(化膿)도 잘 한다.

여자에서는 특히 음부에 요당(尿糖)이 늘 묻어 있기 쉬우므로 곰팡이가 감염되어 염증을 잘 일으킨다. 이것이 질염이나 음부소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9. 시력장애 : 혈당이 올라가면 눈의 조절장애가 일어나는 수가 있다. 당뇨병의 치료를 게을리하면 안저의 망막동맥에 작은 혹(細小動脈瘤)이 생기고 그것이 뒤에 출혈을 일으킨다. 마침 이것이 황반부(黃斑部)라는 곳에 일어나면 시력의 장애가 온다.

그밖에 백내장도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수가 적지 않다.

위와같은 여러가지 증세들이 당뇨병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지만 그밖에도 분명치 않은 증세도 있다. 하여튼 전형적인 증세들을 빼고는 당뇨병의 증세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의심가는 곳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글 · 편집부